장성군, 산림 재난에 강한 숲 가꾸기 박차

산불 예방·탄소중림 실현 26억 투입…화재 취약한 소나무숲 집중 관리
문화유산·사찰 주변 내화수종 보호숲 조성…650ha에 조림지 사업 등

장성군이 지역 산림의 경제성·공익성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장성군은 예산 26억원을 투입해 '산림재난에 강한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공익림 가꾸기로 구분되며 총 1000여 헥타르(ha) 규모다.

주목되는 사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다. 장성군은 나무의 밀도를 조절하고, 숲속 부산물을 제거하는 등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숲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작업을 통해 산불 확산 경로를 차단한다.

향후 천년고찰 백양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등 주요 문화유산과 사찰 주위에 내화수종 보호숲을 조성해 대형산불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다. 650ha에 걸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편백, 상수리, 목백합 등 큰나무들은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 1~3년생 어린나무 주변은 가지를 정리해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풀베기, 덩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공익림은 산림 고유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3월 발생한 전국규모 산불은 산림 10만여 헥타르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서 "산림재난에 강한 숲을 만들어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숲이 지닌 경제성과 공익성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26억 원을 투입해 '산림재난에 강한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장성군 제공〉

강진군, 마늘·양파 파종·수확기 기계 장비 지원

3억원 보조사업 예산 지원
고령화·생산비 부담 해소

강진군이 총 3억 원의 보조사업 예산을 투입해 지역 대표 원예특작 작목인 마늘과 양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안정화에 나섰다.

강진군은 올해 마늘·양파 재배농가에 군 자체사업인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지원사업 ▲우량 마늘종구 구입 지원사업 ▲양파 종자 구입 지원사업 ▲마늘양파 기계장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품질 작물 생산 기반을 다진다.

우량 마늘종구 지원사업의 경우 1000㎡(300평)이상 마늘재배 농가에 총 37ha 규모로 고품질 마늘종구와 주아를 지원해 마늘재배 농가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이 직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작물 재배 특성상 파종에서 수확까지 인력 소모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마늘·양파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마늘·양파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계화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시간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재배면적 확대에도 기여할 것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작천 마늘 농가에서 마늘 수확이 한창이다. 〈강진군 제공〉

윤영문 강진군 농정과장은 "이번 보조사업들은 강진군의 마늘·양파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농업과 경쟁력 있는 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읍시장, 15년 만에 확~ 바뀐다

10억 투입 시설 현대화…가판 철거·배수 개선·조명 교체 등

강진읍시장이 15년 만에 대대적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확 바뀐다

강진군은 총 10억 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강진읍시장 종합동과 수산동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진읍시장은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 시설 개선 이후 편의시설 노후화, 어두운 조명, 열악한 바닥, 배수 불량 등으로 상인과 이용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강진군은 화장실 3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점포 내·외벽을 밝고 통일감 있게 도색한다. LED 조명 교체와 전열·소화시설 설치, 소방안전 로고젝터 도입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동에는 바닥 방수와 배수관 정비로 악취를 없애고, 낡은 스틸그레이팅을 교체한다.

중앙 가판대를 철거하고 공동처리장을 신설해 수산물 위생 처리 환경도 개선한다. 앞으로 빈 점포 정비와 시설물 보수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장 외관도 확 바꾼다. 종합동과 수산동 연결 통로를 새롭게 단장하고, 시장의 정체성을 살린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머무는 시장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며 "상인들과 협력해 공사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장흥군, 홀몸어르신 안부 살피기 시행

지역 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70세 이상 정기 방문 등

장흥군이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70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의 약물복용 여부 확인 및 건강검진 독려를 통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대상자의 건강상태, 식사여부 등 안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등 복약지도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안부확인(전화, 방문 등)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안부살핌우편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 노인들의 고립 예방 및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순창군수 상호기부로 '든든한 연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도

정철원 담양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30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지역에 기부를 했다.

담양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양 지자체 군수와 공무원들이 함께해 지역을 향한 따뜻한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두 지역은 그동안 담양호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차수벽 철거 등 광역경계를 넘어선 협업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뤄왔다. 또 곡성·구례군과 함께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고령화 대응과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올해 구곡순담 정기회의에서는 장수노인 대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치매 조기예측 서비스 도입, 노인복지정책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어르신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정철원(앞줄 왼쪽 네번째) 담양군수와 최영일(왼쪽 다섯번째) 순창군수 등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화순 '인구 감소 대응' 아이디어 찾아요

13일까지 정책 공모전…오고 싶은 화순 등 2가지 주제

화순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연다

화순군은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오는 13일까지 '화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살고 싶은 화순과 오고 싶은 화순 두 가지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을 모집한다.

화순군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부서 실무 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100만원 ▲금상 7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김승오 화순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지역 발전 정책을 발굴하고 화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함평군 현장 점검 실시

함평군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선제 대응에 나서, 여름철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이상익 군수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이 군수는 점검 기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해예방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또 관계 부서에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이와 함께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손불 석창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축산특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세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주요 현장 공정 관리와 안전 조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해예방 대책과 응급 복구 체계 마련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상익 함평군수가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주요 사업장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함평군 제공〉

나주 농업인 대상 농특산물 가공 교육

11일까지 2차 과정 교육생 15명 모집…16~26일 총 6회

나주시가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2025 농업인 가공 아카데미' 2차 교육과정 교육생을 1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실시하며 선착순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생 실무 교육, 가공 창업 성공사례, 식품 유형별 가공 기술 및 설비 이해(건식, 습식),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실습(스콘, 쿠키, 장아찌 등)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했다.

수료생에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 기회, 시제품 제작 및 창업 컨설팅,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11일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